



동신대 한국문화연수에 참가한 외국 대학생들이 직접 김치를 담그며 즐거워하고 있다.

### 세계 대학생들 '한국 배우기'

동신대, 8월 1일까지 22개국 59명 대학생 한국문화 연수

글로벌 리더로 촉망받는 전 세계 22개국 59명의 대학생들이 동신대학교에서 한국 문화를 집중적으로 배우고 있다.

동신대학교(총장 김필식)는 '세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남도'라는 주제로 오는 8월 1일까지 11일간 대학 캠퍼스, 주요 문화유적지, 산업체 등지에서 외국 대학생들에게 한국 문화 연수를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의 '2014년 주요 국가 대학생 초청 연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것으로, 동신대는 세명대와 함께 올해의 위탁기관으로 선정돼 세계 청년들에게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됐다.

연수 참가 학생들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남미, 아시아 등지의 22개국에서 각각 재외공관 추천을 통해 선발됐다. 이들은 지난 22일 입학 후 국립국제교육원에서 개강식을 갖고 이날 밤 동신대에 도착, 23일 오리엔테이션과 한국어특강, 나주왕포토배제험, 나주박물관 견학, 천연염색체험 등을 한 후 K-POP 댄스 배우기, 뷰티미용, 보석만들기 등을 통해 한류 문화를 체험했다.

24일에는 한국문화 집중 특강에 이어 김치

만들기(광주김치박물관), 한국 스포츠문화 체험(7아썬피트니스필드)을, 25일에는 담양지역 문화체험과 한과 만들기(아름다운 호스텔)를 하며 한국의 가정문화를 겪었다.

26일에는 호스텔이 가족과 함께 광주시티투어를 하고 27일 경주지역 문화유적지 견학, 28일 포항제철 울산현대자동차 등 한국 산업체 방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29일에는 아모레퍼시픽에서 한국 화장품 산업의 현재를 살펴보고 30일까지 동대문, 서울 타워, 경복궁, 국회의사당, 명동 등을 돌며 서울 시티투어를 하게 된다. 31일에는 문화체험의 일환으로 단양8경을 둘러보고 환송파티를 끝으로 일정을 마감한 후 1일 각자의 나라로 출국할 예정이다.

이주희 동신대 입학교류처장은 "세계 각국에서 촉망받는 대학생들을 초청해 한국의 역사와 정치, 문화, 산업 등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동북아 중심국가로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이번 프로그램이 크게 기여하리라고 본다"면서 "남도의 문화와 전통을 알리는 기회인만큼 사명감을 갖고 프로그램에 내실을 기했다"고 강조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취업 명문대학 '동강대'

동강대학교가 특성화전문대학에 선정되며 취업전문대학으로서의 명성을 굳혔다.

김동욱 총장이 지난해 8월1일 취임 이후 동강대는 정부의 강도 높은 대학 구조개혁과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에 발맞춰 지역사회와 학생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학생중심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실무형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과 기반 조성으로 교육부의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된 것은 물론 다양한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재학생들의 취업률이 크게 개선되는 성과도 거뒀다.

김동욱 총장은 "지난 1년간 소통, 화합, 신뢰의 바탕 위에 구성원들과 대학의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

기고 있다. 따라서 동강대는 그동안 취업률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3년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우수 대학으로 선정돼 차별화된 취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취업명문 대학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광주·전남 전문대중 유일하게 한국전문대학커리어패스협의회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수도권 으뜸기업에 취업시키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 6월1일자 기준 잠정 취업률은 64%로 집계됐다. 이는 1년전 56%에 비해 무려 8%포인트가 늘어난 것이다. 취업률 졸업생이 일정 기간 이후에도 해당 직장에 계속 다니는지를 조사하는 유지취업률도 2012년 12월 80.9%에서 지난해 12월 83.9%로 늘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성과'...올 취업률 64% 전년비 8%P ↑

7개 학과 '특성화 사업' 선정...글로벌 인재 양성 '해외 연수' 파견

들어 이론과 실무, 인성을 겸비한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데 전력을 다했다"면서 "입학부터 취업까지 철저히 지도해 취업률 100%를 달성하는 명문대학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특성화 전문대학 선정=동강대는 교육부의 '2014년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에서 학과나 계열의 우수한 고등직업 교육프로그램을 선정하는 '프로그램 특성화(III유형)'에 'DK-PIN 교육시스템을 통한 신산업 밀착형 창의인재 양성'을 주제로 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선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인성·창의 교육 프로그램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교육과정 개발, 독창적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산업체 요구를 반영한 인성과 창의력, 전문 직무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성화 사업에는 지역사회·지역산업·국가산업과 연계된 주력산업의 인력수급 전망에 맞춰 전기전자과, 소광물디자인장학과, 보건행정학과, 응급구조과, 임상병리과, 유아교육과, 호텔관광과 등 7개 학과가 참여하게 된다.

동강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재학생들의 취업경쟁력을 확보해 2018년까지 전체 취업률을 80%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취업 역량 강화로 취업률 쑥쑥=취업률은 정부 재정지원사업이나 특성화 전문대학 선정 등 대학 평가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

었다.

일자리 질도 나아졌다. 4년제인 간호학과는 국군 간호장교 등을 배출했고, 경찰경호학부도 매년 20여명의 경찰공무원을 배출하는 전국 최고의 실력을 자랑한다. 응급구조과도 매년 졸업생의 10~20%가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있다. 토지정보관리과는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D/B 취업률 80%를 기록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글로벌 인재 양성 중점=동강대는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감각을 갖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먼저 매년 여름방학 기간 동안 말레이시아 해외 어학연수단을 파견한다.

올해는 지난 6월 16명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떠나 오는 8월9일까지 5주동안 현지 학생들과 교류하며 어학능력을 기르고 다양한 해외문화체험을 통해 국제적 마인드를 함양할 예정이다.

또 자매대학인 대만 남태평양기술대학의 교류 행사도 매년 실시되고 있다. 지난 6월~12월 남태평양기술대학 학생 20여명이 동강대를 방문해 한국어 교육과 김치 담기, 태권도 배우기 등 한국 문화 체험의 기회를 가진 데 이어, 동강대 학생 10명도 8월 18일~30일 2주 동안 남태평양기술대학 초청으로 대만을 방문해 현지 문화체험과 중국어 교육을 받게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호남대 중 세종학당 시설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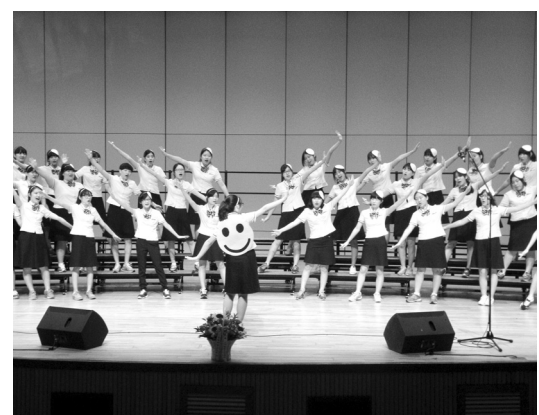
호남대학교(총장 서경석) 중국 항저우 세종학당(학당장 이정림)이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송항근)의 '세종학당 시설개선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지난 2012년 중국 항저우 절강관광대학에 개원한 호남대 항저우 세종학당은 한국 문화 체험관과 음식 체험관, 전용 강의실, 행정실 등으로 꾸려져 있지만 공간이 비좁아 200여 수강생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절강관광대학에 개설된 한국문화체험관 옆 강의실을 세종학당 전용 멀티강의실로 사용하기로 협의를 마친 바 있으며, 이번 지원사업 선정으로 시설개선 지원금을 받게 됨으로써 영상자료 방영을 위한 빔 프로젝터를 설치, 멀티강의실 냉난방시설과 음향 시설 등을 대폭 개선할 수 있게 됐다.

호남대 중국 항저우 세종학당은 향후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홍보하고 교육하는 한국문화체험관으로서의 기능을 특화할 예정이다. 또 한국적 디자인을 갖춘 전문 공간 확보를 통해 기존에 진행해 오던 초청 체험행사 등을 더욱 전문적이고 원활하게 진행해 한국문화를 대표하는 세종학당으로 발전해 갈 것으로 기대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송원여고, 교내 합창대회 개최



송원여자고등학교(교장 최운수)는 최근 광주학생 교육문화회관에서 '2014학년도 교내합창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송원여고의 1학년 학생들은 정규교육과정의 음악 시간을 쪼개어 틈틈이 합창곡을 연습하고, 이 과정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며 소통하는 경험을 했다.

최운수 교장은 "음악을 통해 인성을 지도하고 더 나아가 학교폭력 예방에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학생들은 협동심을 배우고, 풍부한 정서와 창의적인 표현 능력을 키우는 물론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송원여고는 생활교육으로서의 인성교육과 효사랑 실천주간 운영을 정착시키고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과 평가 결과를 2학기 교육활동에 반영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음식물 싱크대에서 즉시처리!

분쇄·분해 후 하수관 배출! 7일 무료사용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 **싱크대 일체형으로 분쇄, 분해 후 하수관 바로 배출**  
(주)편한세상은 분쇄 후 2차미생물 분해 소멸방식으로 하수관으로 바로 배출되는 유일한 합법제품으로 100% 국산 친환경제품입니다. - 올바른 제품 선택만이 소비자의 피해를 줄입니다. -
- **환경부 (2013-91)인증, KC인증 된 합법제품**  
(주)편한세상은 환경부인증(2013-91)은 물론 KC인증과 전자파인증까지 받은 가장 이상적인 합법제품입니다. - 환경부 및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자세한 확인 가능합니다. -
- **KBS 등 방송3사에서 보도 된 합법제품**  
(주)편한세상은 이미 KBS 등 방송3사 뉴스에서 검증 보도된 합법제품입니다.
- **사용 및 유지관리가 아주 편리한 제품입니다.**  
(주)편한세상은 작은 소음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처리시간 30초 이내로 아주 낮은 전기료(월 500원 미만)와 자체 세척기능이 탁월한 제품입니다.
- **완벽한 내구성과 고장률 "0%" 철저한 A/S**  
(주)편한세상은 AC모터와 특수 합금으로 제작된 제품으로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탈부착이 가능한 제품으로 전국 어디든 이진설치에도 자유로운 제품입니다.
- **주방 환경(위생) 획기적 변신**  
(주)편한세상은 그동안 주방에 모자란 음식물쓰레기로 인해 세균, 냄새, 벌레, 귀찮고 번거로움을 한번에 해결 함으로써 가정(주방)의 위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드립니다.



100% 국산 합법제품!

가정용 | 업소용

무료체험 7일 무이자10개월

음식물처리기 선두 기업 (주)편한세상

구입 및 문의

061) 245-2457 전국 설치가능